

일본 연구소 집담회 2009.9.9

한일관계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한일관계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

발표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토론자: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박영준 교수

남기정 교수는 개인적 성장과정과 학문배경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남교수는 한일관계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 나름의 틀을 갖고 구조적, 포괄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시론으로서 이번 연구를 위치지었다. 남교수는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과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국제정치의 세 가지 이론틀로서 분석했다. 즉,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구성주의-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라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이 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기지국가와 전장국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일본을 냉전체제하에서 자국의 안보 주권을 유보하지만 냉전체제하의 기지(base)로서 작동한 일본과 냉전 체제하의 전장(battle field)으로서 작동한 한국이 어떻게 보통국가화되면서 탈냉전, 탈식민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과정을 남교수는 한국의 근대화(민주화/산업화)와 자주화(통일자주화/분단자주화),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민주화/산업화)와 자주화(평화자주화/안보자주화)라는 틀 속에서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 매트릭스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를 각각의 사례분석을 통해 6가지의 매트릭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남교수는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에, 기존 연구 검토에 대한 질문, 기지국가, 전장국가 논의의 적절성등이 토론자에 의해 코멘트되었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세대변화와 시기구분의 문제, 이론적 접근의 한계등에 대해서도 집담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질문이 이어졌다. 남교수는 이번 집담회가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시론으로서 유익한 자리였으며, 코멘트들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마무리지었다.